지역개발연구 제36권 제1호, 2004년 6월, pp.1-22

재미 한인경제의 규모와 구조*

김 태 기**

재미 한인경제의 규모는 70년대부터 이민의 증가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였다. 미국 교민 경제의 총규모는 한국경제의 7.51% 정도이고, 재미 교포의 일인당 소득은 한국의 일인당 소득보다 3.29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인들은 교육수준에 비해 직업의 지위수준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도 다른 아시아 인종에 비해 높지 않다.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들도 미국 전체 평균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개인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교민경제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화상과 같이 교민 대자본을 전제한 교류 방안과는 달리 재미 한인경제의 특성에 맞는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재미교포, 경제규모, 경제구조, 한국경제

Ⅰ. 서 론

2001년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해외교포 수는 약 560만명에 달하며, 이는 국내 총인구의 약 12.5%에 해당한다. 인구수로만 볼 때 이는 2000년 기준으로 경상남북도 인구의 합 579만 명에 근접하는 수치이며, 노르웨이(454만명), 핀란드(520만명), 덴마크(537만명) 등의 인구보다 많다. 또한 총인구에 대한 해외동포의 비율이 일본은 2%, 중국은 4%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한국은 12.5%로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외적인 측면에서도 해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학적 혹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재외한인에 대한 경제적 연구는 대부분 재외한인들의 모국 투자나 모국 경제와의 경제교류에 대한 현상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구성렬, 1996; 홍채식, 2001; 윤인진, 2001). 이들 연구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L2002). 재미 한인경제 연구팀이 공동으로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필자의 의도에 맞게 재정리한 것임. 연구원인 홍성우교수, 손기형교수, 이승준교수, 장선미박사와 자료 정리 등 연구를 도와준 대학원생 박구승, 조수미에게 감사한다.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교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전화: 062-530-1455,
e-mail: tgkim@chonnam.ac.kr

서 재외 한인의 경제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재외 한인의 소기업과 이들 기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Kim, Eun-Young, 1993; 유진경, 1998; Chin, Ku-Sup, Yoon, In-Jin, and Smith, David, 1996; Maret, Elizabeth and Finlay, Barbara, 1989; Yi, Jeong Duk, 1994). 이들 연구는 한인 이민집단의 공동체적 요소가 경제적 성공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재외 한인 경제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인경제공동체의 활성화와 모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발전의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 재미 교포와 한국경제와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의 현황, 특히 경제력과 관련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동포들의 경제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함으로써 경제교류의 강화에 필요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안을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중국의 화상이나 인도의 인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공동체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Census Bureau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재미 한인 경제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모국과의 경제교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모국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한인의 경제규모를 추정하고, Ⅲ장에는 한인 직업 및 기업 분포를 통해 경제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미국 한인경제와 모국과의 교류가능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Ⅱ. 재미 한인사회의 경제규모

1. 재미 한인의 인구 현황

2001년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재미교포 수는 약 210만명이다. 그러나 미국 통계청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재미동포는 약 108만명으로 외교통상부의 자료와는 차이가 크다. 어떤 인구통계가 더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미국 센서스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50년대와 60년대에는 많지 않았으나,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가족관계와 기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원칙으로 대폭 수정됨에 따라 70년대

<표 1> 재미 한인의 이민자와 인구의 변화

이민자		인구	
기간	이민자 수	연도	인구
1948-50	107	1950	약 10,000
1951-60	6,231	1960	-
1961-70	34,526	1970	약 70,000
1971-80	267,637	1980	약 355,000
1981-90	337,746	1990	약 799,000
1991-2000	164,166	2000	약 1,077,000
계	806,414		

자료 : 미 법무부 이민국, 2000년 통계연보(2000 Statistical Yearbook), 미 상무국 Census Bureau, Population Census, 각 연도, 유의영(2002)에서 재인용함.

주 : 미 Census Bureau 인구조사에 의하면, 혼혈혈통을 포함한 2000년 재미교포인구는 1,228,000명임.

와 80년대에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80년대를 정점으로 하여 90년대에는 이민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90년대에 이민자 수가 감소한 것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1992년 미국에서 발생한 인종폭동으로 한인 상권이 약탈, 파괴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000년 재미한인의 인구는 약 108만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0.38%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아시아인의 비율은 3.61%이고, 아시아인 중에서는 중국(0.86%), 필리핀(0.66%), 인도(0.58%)의 순으로 인구가 많다.

1990년 이후 10년 동안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13.15%인데, 특히 아시아인의 인구증가율이 47.23%로 다른 인종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인도(101.79%), 베트남(80.65%), 중국인(47.25%) 순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고, 교포 인구의 증가율도 34.28%로 높은 편이다.

2000년 센서스에서 재미 교포의 성비율을 보면, 남성 44.3%, 여성 55.7%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 미국 전체 혼혈인 비율은 2.3%인데 비해 아시아계의 혼혈인 비율은 14.2%로 높은 편이고, 재미 한인의 혼혈인 비율도 12.6%로 아시아계와 같이 높은 편이다.

미국을 여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인종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1] 아시아인 비율

1) 미국 통계국의 지역구분 가운데 하나인 CMSA(Consolidate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기준으로 6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시카고 지역(Chicago-Gary-Kenosha), 로스앤

<표 2> 인종별 인구 변화: 1990-2000

	1990년		2000년		변화율
	만명	비율	만명	비율	(1990-2000)
전 체	24,871	100.00	28,142	100.00	13.15
백인	19,969	80.29	21,135	75.10	5.84
흑인	2,999	12.06	3,436	12.21	14.59
아시아인	691	2.78	1,017	3.61	47.23
인도인	82	0.33	165	0.58	101.79
중국인	165	0.66	242	0.86	47.25
필리핀인	141	0.57	186	0.66	32.51
일본인	85	0.34	80	0.28	-6.20
한국인	**80**	**0.32**	**108**	**0.38**	**34.28**
베트남인	61	0.25	111	0.39	80.65
기타 아시아인	78	0.31	126	0.45	61.70
태평양 섬 지역인	37	0.15	38	0.13	3.77
히스패닉/라티노인[1)]	2,235	8.99	3,524	12.52	57.64

자료 : Korean American Coalition(2003)

주 : 히스패닉/라티노인은 전체 분류(백인, 흑인, 아시아인 등)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다른 분류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히스패닉/라티노인 비율을 포함하면 전체는 100%를 초과한다.

이 높은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지역 등 서부연안 지역이고, 한국인의 분포 경향도 아시아인과 유사하다. 한국인 약 108만명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26만여명, 뉴욕 지역에 17만여명이 있다. 이들은 미국 내 한국인 가운데 각각 24.1%, 16.0% 해당하는 인구로 한국인의 40%가 두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재미 한국인 중 미국에서 출생한 교포의 비율은 22.3%이다. 여기에 이주한 한국인 중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합하면 재미 교포 중 시민권자의 비율은 61.8%이다.

젤레스 지역(Los Angeles-Riverside-Orange County), 뉴욕 지역(New York-Northern New Jersey-Long Island), 샌프란시스코 지역(San Francisco-Oakland-San Jose), 시애틀 지역(Seattle-Tacoma-Bremerton), 워싱턴 지역(Washington D.C-Baltimore). 자세한 내용은 Population Census 2000을 참고할 것.

2. 재미 한인의 일인당 소득

<표 3>에서 미국 상무부의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1999년 재미 한국인의 일인당 소득은 18,805달러로 미국 평균 일인당 소득인 21,587달러에 비해 낮다.[2] 재미 한인의 일인당 소득은 일본인(30,075달러), 인도인(27,514달러), 중국인(23,756달러), 필리핀인(21,267달러) 등 아시아 다른 민족에 비해 낮다.

재미 한인의 일인당 소득은 1989년 11,177달러에서 1999년 18,805달러로 10년간에 68.2%가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 전체의 평균 증가율 49.7%와 아시아인의 평균 증가율 58.1%보다 높다. 한인의 소득 수준이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낮은 편이지만 증가율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은 41,994달러이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인이 51,908달러로 여타 소수인종에 비해 높다. 아시아인 가운데 인도인이 63,669달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필리핀인(60,570달러), 일본인(52,060달러), 중국인(51,444달러)의 순이고, 한국인(40,037달러)의 중위 소득이 가장 낮다.

<표 3> 1인당 소득의 변화(1989-1999)

단위: 달러, %

	1989	1999		일인당 소득 변화율 (1989-99, %)
	일인당 소득	일인당 소득	중위소득	
전 체	14,420	21,587	41,994	49.7
백인	15,687	23,918	44,687	52.5
흑인	8,859	14,437	29,423	63.0
원주민	8,328	12,893	30,599	54.8
아시아인	13,806	21,823	51,908	58.1
인도인	17,777	27,514	63,669	54.8
중국인	14,876	23,756	51,444	59.7
필리핀인	13,616	21,267	60,570	56.2
일본인	19,373	30,075	52,060	55.2
한국인	**11,177**	**18,805**	**40,037**	**68.2**
베트남인	9,032	15,655	45,085	73.3
태평양 섬 지역인	10,342	15,054	42,717	45.6

자료: U.S. Census Bureau, Census 2000.

2) 미국의 1999년 일인당 소득은 32,260달러인데, 인구센서스에 의한 평균소득은 실제 평균소득보다 낮다.

<표 4> 지역별 일인당 소득과 중위소득

		전체	시카고 지역	로스 앤젤레스 지역	뉴욕 지역	샌프란 시스코 지역	시애틀 지역	워싱턴 지역
일인당 평균 소득	미국 전체	21,587	24,581	21,170	26,604	30,769	25,744	28,175
	한국인	18,805	22,354	18,431	20,840	25,608	17,580	20,447
중위소득	미국 전체	41,994	51,046	45,903	50,795	62,024	50,733	57,291
	한국인	40,037	45,299	37,957	43,861	53,115	37,039	50,027

자료 : U.S. Census Bureau, Census 2000.

재미 교포의 지역별 일인당 소득은 샌프란시스코 지역(25,608달러)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카고 지역(22,354달러), 뉴욕 지역(20,840달러), 워싱턴 지역(20,447달러), 로스앤젤레스 지역(18,431달러), 시애틀 지역(17,580달러) 순이다.

한국인들의 지역별 중위소득도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53,115달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워싱턴 지역(50,027달러), 시카고 지역(45,299달러), 뉴욕 지역(43,861달러), 로스앤젤레스 지역(37,957달러), 시애틀 지역(37,039달러)의 순이다. 지역별 중위소득은 일인당 소득의 지역별 순위와 약간 차이가 있다.

미국 전체의 지역별 평균소득은 대체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워싱톤, 뉴욕, 시애틀, 시카고의 순이고 LA지역이 가장 낮다. 한국인의 지역별 평균소득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미국 전체와 유사하지만, 시애틀 지역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미국의 지역별 소득 분포와 차이가 있다.

3. 재미 한인경제의 규모 추정

센서스에 근거한 일인당 소득은 경제학적 의미의 일인당 소득과 같지 않다. 대체로 센서스의 자료는 일반적인 소득 통계보다 과소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센서스의 통계값을 다른 일반적 통계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재미교포의 소득규모를 인구수와 일인당 소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GNI_i = \alpha \times POP_i \times Y_i$$

여기서 α는 조정계수, POP는 인구수, Y는 일인당 소득이고, i는 지역이다. 조정계수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미국의 일인당 소득과 미국 Census의 일인당 소득을

비교하여 계수의 크기를 결정하고자 한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통계청의 센서스에 근거한 소득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일인당 GNI와 총GNI에 비해 과소 평가되어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미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32,260달러이다. 그러나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체 평균소득은 21,587달러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센서스에 근거한 GNI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미국 GNI보다 작다. 즉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미국 GNI와 일인당 GNI는 센서스 자료보다 각각 1,480, 1.494배가 더 크다. 이는 센서스 통계가 조정계수 정도만큼 과소평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표 5>의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재미 한인의 일인당 GNI와 GNI를 추정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전체 교민의 일인당 소득은 센서스 통계로는 18,805달러다. 이를 조정계수를 이용해 조정하면 교민의 일인당 소득은 28,095달러로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8,530달러보다 3.29배가 더 크다. 또 미국 교민의 총

<표 5> 미국의 GNI와 조정계수의 크기 추정 (1999년)

	세계은행 통계(A)	미국 Census 통계(B)	조정계수(A/B)
일인당 GNI(달러)	32,260	21,587	1.494
GNI(백만달러)	8,989,036	6,075,055	1.480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표 6> 재미 한인 교포의 일인당 GNI와 총 GNI의 추정치(1999년)

	센서스 통계			조정한 통계값		교민경제의 한국 경제에 대한 비중	
	인구 (천명)	일인당 GNI	추정 GNI	일인당 GNI	GNI	일인당 GNI 비율	GNI의 비율(%)
미국전지역	**1,073**	**18,805**	**20,172**	**28,095**	**29,854**	**3.29**	**7.51**
시카고 지역	47	22,354	1,044	33,397	1,545	3.92	0.39
로스앤젤레스 지역	258	18,431	4,763	27,536	7,049	3.23	1.77
뉴욕지역	171	20,840	3,572	31,135	5,287	3.65	1.33
샌프란시스코 지역	56	25,608	1,437	38,258	2,126	4.49	0.53
시애틀 지역	42	17,580	732	26,265	1,084	3.08	0.27
워싱턴 지역	74	20,447	1,514	30,548	2,241	3.58	0.56

주 : 1) 1999년 한국의 일인당 GNI는 8,530달러이고, 총 GNI는 397,554백만달러이다. '교민경제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중'은 한국의 일인당 GNI(또는 총GNI)에 대한 교민 경제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다.

GNI는 29,854백만 달러로 한국경제 총 GNI의 7.51%이다.

지역별로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교민의 일인당 소득은 한국의 4.49배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카고, 뉴욕, 워싱턴의 순이다. 지역별 경제규모로는 LA지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뉴욕이다. 이 두 지역의 경제규모는 한국 경제규모의 3.1%에 해당한다.

Ⅲ. 재미 한인경제의 구조

1. 재미 한인의 직업분포

<표 7>은 인종별 직업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3] 2000년에 미국인 전체적으로는 경영・전문직 관련업 인구가 33.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판매와 사무업 26.7%, 서비스업 14.9%, 생산・교통 및 원자재 수송업 14.6%, 건설・추출・보수업 9.4%, 농업・수산업・임업 0.7% 순이다. 이러한 직업분포의 순위는 아시아인이나 한국인의 경우도 유사하다. 다만, 아시아인은 경영・전문직 관련업이 44.6%로 다른 인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인도인, 중국인, 일본인은 경영・전문직 관련업 인구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인도 경영・전문직 관련업이 38.7%로 높은 편이다.

직업 분포는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 통계청 센서스에 의하면, 미국인 가운데 학사학위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4%에 해당한다. 미국 내 아시아인 중 학사학위 이상 인구는 44.1%로 다른 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아시아인 가운데에서도 인도인이 6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인(48.1%), 인도네시아인(46.6%), 필리핀인(43.8%), 한국인(43.8%)의 순이다. 아시아인의 높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경영・전문직 관련업 종사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로 생각된다.

재미 한국인은 교육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시아 인종에 비해 경영, 전문직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인에 비해 서비스 관련업이나

3) 직업을 여섯 종류로 구분하였다. 여섯 가지는 경영, 전문직 관련업(management, professional, and related occupations)과 서비스업(service occupations), 판매와 사무업(sales and office occupations), 농업・수산업・임업(farming, fishing, and forestry occupations), 건설・추출・보수업(construction, extraction, and maintenance occupations), 생산・교통 및 원자재 수송업(production, transportation, and material moving occupations)이다.

<표 7> 16세 이상 인구의 직업 분포

단위: %

	전체	경영, 전문직	서비스 관련	판매 및 사무직	농업, 어업, 임업 관련	건축, 추출, 보수 관련	생산, 교통, 원자재 운송
전 체	100	33.6	14.9	26.7	0.7	9.4	14.6
백인	100	35.6	13.4	27.0	0.6	9.8	13.6
흑인	100	25.2	22.0	27.3	0.4	6.5	18.6
원주민	100	24.3	20.6	24.0	1.3	12.9	16.8
아시아인	100	44.6	14.1	24.0	0.3	3.6	13.4
인도인	100	59.9	7.0	21.4	0.2	2.1	9.4
중국인	100	52.3	13.9	20.8	0.1	2.6	10.4
필리핀인	100	38.2	17.5	28.1	0.5	4.1	11.5
일본인	100	50.7	11.9	26.9	0.4	4.3	5.9
한국인	**100**	**38.7**	**14.8**	**30.2**	**0.2**	**3.9**	**12.2**
베트남인	100	26.9	19.3	18.6	0.6	5.9	28.8
태평양 섬 지역인	100	23.3	20.8	28.8	0.9	9.6	16.5
히스패닉/라티노인	100	18.1	21.8	23.1	2.7	13.1	21.2
히스패닉/라티노인 제외	100	35.4	14.1	27.1	0.5	9.0	13.9

자료: U.S. Census Bureau, Population Census 2000.

판매 및 사무직의 비중이 높다. 한국인들은 높은 학력에 비해 직업별 지위가 일본, 인도, 중국인보다는 낮고, 필리핀인과 유사하고, 베트남인들보다는 높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직업별 지위가 다른 아시아 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한국인들의 일인당 소득이 다른 아시아 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로 생각된다.

2000년 미국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 전체 실업률은 5.7%이었다. 백인의 실업률이 4.6%로 가장 낮고, 다음이 아시아인(5.1%), 태평양 섬 지역인(10.6), 흑인(11.4%), 원주민(12.3%) 순이었다. 미국 내 한국인 전체 실업률은 5.4%로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아시아인 평균 실업률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

2. 재미 한인 기업체 현황

미국내 한인 경제권의 형성과 성장은 미국 교포수의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1972년만 해도 한인 기업체 수는 1,201개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약

13.6만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기업체 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70-80년대의 대규모 이민으로 교포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업체 수의 증가와 함께 한인 기업의 매출도 70-80년대에 대폭 증가하고 있다. 90년대에는 기업체 수의 증가에 비해 매출 증가가 매우 높아 기업당 평균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인 기업체의 규모가 점차 과거보다는 대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7년 한인 업체의 법적 형태를 보면, 단독기업이 7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의 C회사와 S회사의 비율은 21.6%정도다. 한인의 기업형태 비율은 미국 전체의 기업형태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미국 주식회사의 총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90.8%임에 비해 한인 주식회사의 총매출액은 62.8%에 그쳐 한인 기업의 규모가 미국 기업의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표 8> 한인 업체수와 매출의 변화

연도	업체수	매출(단위: 천$)	평균매출	전기 대비 증가비율		
				업체수	매출	평균매출
1972	1,201	64,839	53,986	-	-	-
1977	8,504	554,040	65,151	6.08	8.55	1.21
1987	69,304	7,082,255	110,849	8.15	12.78	1.70
1997	135,571	45,936,497	338,837	1.96	6.48	3.06

자료 : U.S. Census Bureau, 1997 Survey of Minority-Owned Business Enterprises, MB72-3, MB77-3, EC97C5-5, 오문성(2002)에서 재인용.

<표 9> 한인업체와 총미국업체의 법적 형태, 1997

법적형태	한인업체				총미국업체			
	업체수	%	매출(백만$)	%	업체수	%	매출(백만$)	%
C 회사(C Corp.)	17,525	12.9	14,550	31.7	2,390,478	11.5	13,852,225	74.7
Subchapter S 회사	11,840	8.7	14,296	31.1	1,979,425	9.5	2,977,247	16.1
단독기업	102,469	75.6	11,279	24.6	15,122,882	72.6	871,766	4.7
동업	2,793	2.1	784	1.7	1,226,455	5.9	621,735	3.4
기타	943	0.7	5,028	10.9	102,694	0.5	190,270	1.1
계	135,571	100.0	45,936	100.0	20,821,934	100.0	18,553,243	100.0

자료 : U.S. Census Bureau, 1997 Survey of Minority-Owned Business Enterprises: Asians and Pacific Islanders, EC97C5-5. Washington, D.C: USGPO, May, 2001, PP.9-124, 오문성(2002)에서 재인용.

단독기업의 매출 비율은 4.7%에 불과 함에 비해 한인 기업의 경우 단독기업의 매출 비율이 24.6%인데, 이는 한인 기업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표 10>에서 한인 기업의 산업별 현황을 보면, 한인업체의 대다수가 서비스업과 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1977년 44.3%에 달하던 소매업체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서비스업체의 수는 1977년 38.6%에서 1997년에는 42.8%로 증가하고 있다. 이 두 업종의 비중에 변화가 있지만, 이 두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1977년에는 82.9%, 1987년 79.0%, 1997년에는 74.5%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소매업과 서비스업이 한인 업체 중 가장 중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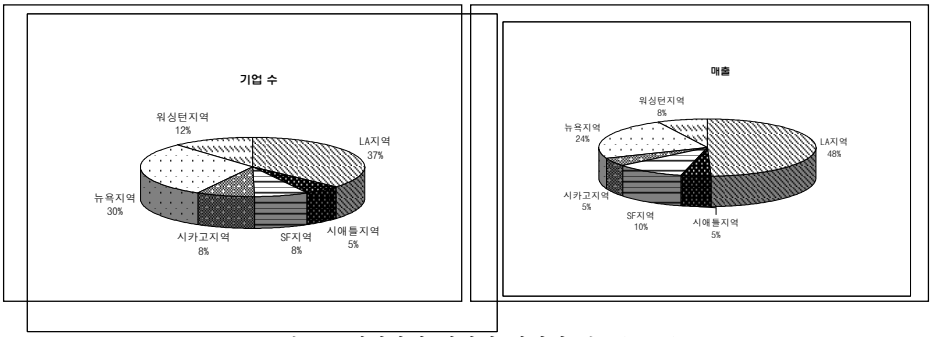
한인 도매업 기업은 그 수와 매출 비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1997년 기준으로 기업당 평균매출은 도매업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제조업, 소매업의 순이다. 전반적으로 어느 업종에서나 평균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1977년 65.2천달러에서 1997년 338.8천 달러로 20년간 평균 매출이 약 5배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도매업과 제조업에서 평균매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표 10> 재미한인 기업의 산업별 현황

	기업수(%)			매출(%)			기업당 평균 매출 (천달러)		
	1977	1987	1997	1977	1987	1997	1977	1987	1997
농림어업	-	0.8	0.5	-	0.4	-	-	50	-
광업	-	0.1	0.1	-	-	-	-	-	-
건설관련업	3.1	4.7	4.0	1.3	2.9	1.7	27.1	67.4	142.3
제조업	2.2	2.7	2.6	4.3	4.3	7.4	123.8	175.3	932.9
교통,통신	2.5	2.3	2.7	0.9	1.1	1.3	24.8	55.0	157.7
금융,보험,부동산	2.8	3.9	3.0	0.8	1.5	1.3	17.7	42.4	150.4
도매업	2.5	2.8	5.1	6.4	11.4	29.1	169.9	459.1	1,933.4
소매업	44.3	37.7	31.7	61.6	52.9	37.4	90.7	155.3	400.0
서비스업	38.6	41.3	42.8	22.7	23.1	19.7	38.3	62.0	155.7
미분류산업	2.5	3.7	7.5	1.5	-	2.1	39.9	-	96.0
기타	1.5	-	-	0.4	-	-	18.9	-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97.6	100.0	65.2	110.9	338.8

자료 : U.S. Census Bureau, 1997 Survey of Minority-Owned Business Enterprises: 1977, 1987 and 1997 Issues.

주 : 1) 유보된 자료로 인하여 총계가 100%에 미달함. 2) 1977년 통계에는 통신은 포함되지 않음.



<그림 1> 재미한인 기업의 지역별 분포(1997)

<표 11> 한인소유 서비스업 현황, 1997

SIC코드 업종	업체수	%	매출(천$)	%
70 호텔 및 숙박업	689	1.2	618	6.8
72 개인상대서비스	22,619	39.0	1,715,660	19.0
73 기업상대서비스	15,553	26.8	2,897,475	32.1
75 자동차 수리 및 주차장	2,202	3.8	406,824	4.5
76 기타수리서비스	1,097	1.9	95,213	1.2
78 영화	808	1.4	130,237	1.4
79 오락 및 여흥서비스	1,904	3.3	188,012	2.0
80 건강 서비스	5,362	9.2	1,486,063	16.5
81 법률 서비스	527	0.9	44,727	0.5
82 교육 서비스	1,795	3.1	70,859	0.8
83 사회서비스	645	1.1	14,512	0.2
84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1	0	-	
87 엔지니어링 및 경영 서비스	4,575	7.9	1,356,625	15.0
89 기타서비스	232	0.4	-	
계	58,003	100.0	9,031,204	100.0

자료 : U.S. Census Bureau, Survey of Minority-Owned Enterprises: Asians and Pacific Islanders. EC97C5-5. Washington, D.C: USGPO, May. 2001, pp.28-30. 오문성(2002)에서 재인용.
주 : 1) 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표준산업구분

<그림 1>에서 한인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LA지역에 37%가 있고, 뉴욕지역에 30%가 있다. LA와 뉴욕지역에 67%의 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매출액은 LA지역이 48%를 차지하고 있고, 뉴욕지역이 24%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두 지역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LA와 뉴욕 지역의 인

구집중도(40%)에 비해 기업 활동 집중도가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업 중에서는 개인상대서비스업과 기업상대서비스업의 비중이 전체 65.8%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대상 서비스업에는 세탁소, 사진관, 이발소, 미용원, 구두수선소, 공인회계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업상대서비스업에는 각종 광고업, 상업용 건물청소업, 컴퓨터프로그램밍, 자료전산처리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는 병원, 치과 등의 건강관련 의료서비스업, 자동차수리 및 주차장 서비스업이 있다.

<표 12>를 보면 한인 소매업 중에서 식품상, 식당 및 음료판매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상에는 마켓, 청과, 채소, 생선, 육류를 판매하는 업소와 제과점이 포함되어 있고, 식당 및 음료판매점에는 각종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카페테리아, 스낵바, 다방, 나이트클럽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소매업에는 리커스토어, 각종 고물상점, 골돌품점, 서점, 문방구, 보석점, 가방, 운동구, 선물판매업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한인의 경우 자영업의 비율이 어느 인종보다도 높은 편이다. 유의영(1990)에 의하면 1988-89년 남가주 지역에서 자영업의 비율이 40%이고, 민병갑(1993)에 따르면 LA지역에서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의 비율이 남성 53%, 여성 36%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전체적으로 남성 12%, 여성 10%가 자영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인의 자영업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12> 한인소유 소매업 현황, 1997

SIC코드 업종	업체수	%	매출(천$)	%
52 건축자재 및 정원공급품	146	0.3	52,270	0.3
53 일반상품정	1,269	3.0	194	1.1
54 식품상	10,336	24.1	5,718,651	33.3
55 자동차 판매 및 주유소	1,202	2.8	4,340,748	25.3
56 의류 및 액세서리점	6,317	14.7	2,119,373	12.4
57 가구 및 집안장식점	628	1.5	682,057	4.0
58 식당 및 음료 판매점	10,182	23.7	1,750,972	10.2
59 기타소매점	12,839	29.9	2,307,087	13.4
계	42,916	100.0	17,165,223	100.0

자료 : U.S. Census Bureau, Survey of Minority-Owned Enterprises: Asians and Pacific Islanders. EC97C5-5. Washington, D.C: USGPO, May. 2001, pp.25-27. 오문성(2002)에서 재인용.

<표 13> 인종별 기업 수의 변화

전 체	1987	1992		1997		증가 비율	
	기업수(A)	기업수(B)	비율(%)	기업수(C)	비율(%)	1987-92 (B/A)	1992-97 (C/B)
전 체	·	17,253,143	100.00	20,821,935	100.00	·	1.21
백인	·	15,287,578	88.61	12,365,868	59.39	·	0.81
소수인종 전체	·	1,965,565	11.39	3,039,033	14.60	0.25	1.55
흑인	424,165	620,912	3.60	823,499	3.95	1.46	1.33
히스패닉	·	771,708	4.47	1,199,896	5.76	·	1.56
인도인	52,266	88,851	0.51	166,737	0.80	1.70	1.88
중국인	89,717	148,460	0.86	252,577	1.21	1.65	1.70
필리핀인	40,412	60,289	0.35	84,534	0.41	1.49	1.40
일본인	53,372	62,295	0.36	85,538	0.41	1.17	1.37
한국인	**69,304**	**99,180**	**0.57**	**135,571**	**0.65**	**1.43**	**1.37**
베트남인	25,671	58,359	0.34	97,764	0.47	2.27	1.68

자료 : U. S. Economic Census 1987, 1992, 1997.

주 : 여성기업과 누락된 인종이 있어서 구성비의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음.

3. 타인종 기업과의 비교

<표 13>은 인종별 기업체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7년 미국 전체 기업수는 약 2,082만개다. 미국 전체 기업 중에서 백인 기업이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인종이 14.6%, 나머지 약 26%는 여성 기업이다.[4] 소수 민족 중에서는 히스패닉이 가장 많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시아계에서는 중국(1.21%), 한국(0.65%), 베트남(0.47%) 순이다. 기업 수만을 보면 한국인의 기업수가 다른 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은 아니다.

1987-92년의 5년간 기업 수의 증가율을 보면, 한국의 기업수는 약 1.43배가 되었다. 베트남의 기업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인도와 중국의 기업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1992-97년의 기간에는 한국은 1.37배로 그 이전 5년간의 증가율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중국, 베트남의 기업 증가율이 높다. 동기간동안 백인 기업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소수 인종의 기업 수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수인종 중에서는 베트남, 인도, 중국인 기업의 증가율이 높다.

4) 미국 경제통계 센서스에서는 인종 구분과는 별개로 여성을 하나의 분류단위로 하고 있음.

<표 14> 기업의 평균 매출액과 평균 종업원수

	전체기업	유급종업원이 있는 기업			
	기업당 매출 (천 달러)	기업당 매출 (천 달러)	기업당 종업원수	종업원 연봉 (달러)	전체기업 중 유급종업원기업의 비율(%)
미국 전체	891	3,382	19.5	28,410	25.4
백인	1,386	4,350	23.9	29,333	31.0
소수인종 전체	195	840	7.3	21,160	20.2
흑인	86	605	7.7	19,938	11.3
히스패닉	155	749	6.6	21,480	17.7
미국 원주민	174	878	9.0	22,180	16.9
아시아인과 태평양인	336	960	7.6	20,961	31.8
인도인	405	919	7.3	25,652	40.3
중국인	420	1,084	7.6	18,713	35.9
필리핀인	131	615	7.6	24,220	17.2
일본인	511	1,772	11.2	27,102	27.2
한국인	**339**	**814**	**6.7**	**17,352**	**36.9**
베트남인	95	357	4.2	14,747	19.4
기타 아시아인	268	754	9.0	15,554	31.5
하와이 원주민	145	967	10.2	24,058	13.0
기타 태평양섬지역	494	1,768	13.3	21,447	26.1
여성	151	848	8.4	21,073	15.6

자료: U. S. Economic Census, 1997.

<표 14>에서 인종별 기업당 평균매출을 보면, 백인 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386천달러임에 비해 소수인종 전체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95천달러로 백인 기업에 비해 소수인종 기업의 규모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339천달러이고, 유급종업원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814천달러이다. 한국인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소수인종의 전체 평균보다 높고, 아시아인의 전체 평균과는 유사하다. 유급종업원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소수인종 전체 평균이나 아시아인의 전체 평균보다 낮다. 아시아인 중에서는 일본인, 중국인, 인도인의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기업당 종업원 수를 보면, 매출액의 순위와 유사하다. 백인 기업의 경우는 기업당 23.9명을 고용함에 비해, 소수인종 기업의 경우는 기업당 7.3명을 고용하고 있

다. 아시아인 기업도 소수인종 전체 평균과 유사하게 기업당 7.6명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인 기업은 기업당 6.7명으로 소수인종 전체 평균이나 아시아인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종업원 수의 측면에서도 한국인의 기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종업원의 연봉을 보면, 백인기업의 연봉 수준이 소수인종 기업의 연봉 수준에 비해 높다. 아시아계 기업 종업원의 평균 연봉은 20,961달러로 소수인종 기업의 전체평균보다 약간 낮다. 한국인 기업 종업원의 평균 연봉은 17,352달러로 아시아계 기업 종업원의 평균연봉보다 낮은 편이다. 아시아계 중에서는 일본인, 인도인, 필리핀인 기업의 종업원 연봉이 높은 편이다.

전체 기업 중에서 유급종업원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백인 31.0%, 소수인종 20.2%, 아시아계 31.8%이다. 이에 비해 한국인 기업은 36.9%로 인도인 다음으로 유급종업원 기업의 비율이 높다.

이상의 자료를 정리하면, 한인 기업의 평균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종업원 수도 계속 늘어나는 등 1970년 이후 기업의 규모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인 기업의 규모는 작고 영세하고, 대부분 소매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 일본이나 중국, 인도 기업에 비해서 종업원의 연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형태도 주식회사보다는 개인사업(individual proprietorship)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어서 아직은 소규모 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모국과의 경제교류 가능성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1999년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8,530달러이고, 총 GNI는 397,554백만달러다. 미국 센서스에 의하면, 1999년 교민의 일인당 소득은 18,805달러인데, 이를 세계은행 통계와 비교하기 위해 조정한 재미 교포의 일인당 소득은 29,854달러이다. 따라서 교민의 일인당 소득은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보다 3.29배 정도 더 높다. 그리고 미국 교민 경제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면 29,854백만달러로 한국 전체 GNI의 7.51%다. 교민경제의 규모가 한국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태기 등(2004)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민들의 모국 제품에 대한 소비성

향은 비교적 호의적이다. 상품의 구매비율이 높은 편이고, 모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도도 높다. 또 모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갖고 싶다는 교민의 비율이 높고, 과반수 이상의 교민이 기회가 되면 한국과 관련된 기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답하고 있다. 설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민의 모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의향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민경제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고, 교민들이 모국과의 교류의사가 높다는 점에서 재미 교포경제와 모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교민경제의 추정치에서 알 수 있듯이 교민 전체의 경제규모는 상당히 크다. 특히 교민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LA와 뉴욕지역은 교민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교민의 기업 형태가 대부분 자영업의 스몰비지니스라는 점에서 모국과의 경제교류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교민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 자영업의 운영 비율이 높고, 기업의 규모도 다른 인종의 기업 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다. 자영업의 주요 고객은 백인, 한인, 다른 소수인종 등 다양하지만, 고용인은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족이나 한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교민경제와의 교류 방안도 화상과 같이 교민 대자본을 전제한 경제교류 방안보다는 교민경제의 특성에 맞는 경제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민과 한국경제와의 교류는 한국 및 한민족 경제의 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교민과의 교류를 통해 한민족간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와 재화 및 용역 등 상품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서 자원보유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해외교포의 역량은 화교들의 역량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나 해외교포들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교포들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교포 거주국과 모국간의 관계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미 교포경제와 한국과의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수준이 높고 질이 좋은 재미 교포를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고용하여 현지시장개척, 기술개발과 경제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 진출 한국기업의 성과 확대에 기여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민경제력 확대에 기여하여 모국과 교민경제간의 공동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재미 일본인들은 일본기업에 고용되어 일본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내 일본인들의 경제력 향상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

둘째, 같은 민족간에는 소비성향이 유사하기 때문에 재미 교포 경제를 한국 수출상품의 주요 시장으로 활용한다. 이는 한국 상품이 미국의 여타 시장으로 확산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교민 경제를 한국 상품의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교포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적합한 투자상품과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포의 경제규모가 화상과 같이 크지는 않지만, 한국경제와 재외동포경제간에 자본교류를 활발히 하여 교포와 모국과의 공동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투자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재외동포의 국내투자가 단일 창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국내기업 역시 재외동포와의 교류가 단일창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넷째, 재미교포와 모국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호방문 및 행사의 공동주최 등을 활성화하여 교포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재미교포 시장과 이들이 의존하는 소수민족시장의 규모가 작은 것을 고려하여 대기업보다는 틈새시장을 파고 들 수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 론

재미 한인교포는 70년대와 80년대에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인 경제규모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한인들은 교육수준에 비해 직업의 지위수준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도 다른 아시아 인종에 비해 높지 않다.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들도 미국 전체 평균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개인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 한인의 경제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재미 교민의 일인당 소득은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보다 3.29배 정도 더 높고, 미국 교민 경제의 전체 규모는 한국경제 전체 규모의 7.51%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교민 경제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 교민들은 한국경제와 한국 상품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고, 한국 상품의 구매비율도 높은 편이다. 대체로 교민들은 모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의향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교민이 운영하는 기업이 대부분 자영업의 스몰비지니스라는 점에서 모국과의 경제교류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미

국 교민경제와의 교류 방안도 화상과 같이 교민 대자본을 전제한 교류 방안보다는 다른 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교류 방안으로는 먼저 교민을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고용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한국 상품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여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류 방안은 교민 경제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출증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교민의 기업규모가 스몰비지니스 중심이라는 점에서 교민의 모국투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교민 중에는 소액투자지만 모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모국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민경제와 모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나 기회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점차 해외교포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데, 모국과의 경제교류가 강화되면 교포들의 응집력을 유지하고,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민경제와 모국경제와의 경제교류가 교민경제만이 아니라 모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교포공동체의 결집과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구성렬, 『해외교포가 한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6.

김광식 · 김신, “재미교포의 자영소기업에 대하여”, 『재외한인연구』 2, 서울: 재외한인학회, 1992.

김태기 · 홍성우 · 손기형 · 이승준 · 장선미, 『재미 한인사회의 경제환경 기초 조사』, 세계한상(韓商)네트워크와 한민족문화공동체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박순호, “재미교포 영세자영업에 있어서의 민족자원”, 『경북대지리학논총』 15, 1995.

오문성, “미주 한인 경제권 형성과 성장,” 『미주 한인이민 100년사』(한미동포재단 미주 한인이민 100주면 남가주 기념사업회), pp.149-158, 2002.

유의영, “미주 한인의 인구학적 특성,” 『미주 한인이민 100년사』(한미동포재단 미주 한인이민 100주면 남가주 기념사업회), pp.131-148, 2002.

유진경, “미국의 이민자 비즈니스오너들의 연결망 활용경향에 대한 연구: 애틀란타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한국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외한인연구』 7, 1998.

윤인진, “재외동포 모국투자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재외한인연구』 1, 재외한인학회, 2002.

_____,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방안”,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학회, 2001.

홍채식, “한반도의 경제발전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방안”, 제6회 해외한민족 대표자대회 발표논문집, 2001.

Chin, Ku-Sup, Yoon, In-Jin, and Smith, David, “Immigrant Small Business and International Economic Linkage: A Case of the Korean Wig Industry in Los Angeles, 1968-1977,”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 1996.

Kim, Eun-Young, “Career Choice among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s: Reflections of A Cultural Model of Success,”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24, 1993.

Kim, Kwang Chung and Hurh, Won Moo, “Ethnic Resources Utilization of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 in the Chicago Minority Are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1), 1985.

_____,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Korean Small Business in the Chicago Minority Are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1), 1985.

Korean American Coalition, “Population Change by Race and Ethnicity, 1990-2000, USA, California, Southern California, LA County, Orange County, Koreatow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Korean American Coalition - Census Information Center, July 2003.

Light, Ivan and Bonacich, Edna,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Maret, Elizabeth and Finlay, Barbara, “Some Positive Functions of Ethnic Business for and Immigrant Community: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Final Report Submitted to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89.

Min, Pyong Gap, “Problems of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4, 1990.

_____,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Ivan Light and Bhachu Parminder (eds.), *Immigr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Transaction Publications, 1993.

_____, *Caught in the Middle: Korean Merchants in America's Multi-ethnic Ci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Shin, Eui-Hang and Han, Shin-Kap, "Korean Immigrant Small Business in Chicago: an

Analysis of the Resource Mobilization Processes," *Amerasia Journal*, 16, 1990.

Yi, Jeong Duk, “Bitter Fruit: Capital Accumulation and Everyday Life in New York City Korean Shopkeeper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7, 1994.

Yoo, Jin-Kyung,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 Network and Ethnic Resources*,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8.

Yoon, In-Jin, “The Growth of Korean Immigrant Entrepreneruship in Chicago,” *Ethnic and Racial Studies*, 18(2), 1995.

Yu, Eui-Young, Korean Community Profile: Life and Consumer Patterns, Los Angeles, The Korea Times/Hankook Ilbo, 1990.

<Abstract>

Economy Size and Economic Structure of Korean-American Society

Taegi Kim

Professor, Dept.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opulation of Korean-American has increased rapidly since 1970s. It is estimated that economy size of Korean-American society is about 7.51 percent of Korean economy, and that the per capita income is 3.29 times higher than Korean per capita GNI. However, their incomes and job qualities are lower than other Asian-American, in particular compared to Japanese-American or Chinese-American. Most of their businesses are composed of private small businesses, and their sizes are smaller than average American small businesses. Therefore, the way to strengthening economic network between Korea and Korean-American Businesses must be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and Chinese diaspora.

Key word: Korean-American, economy size, economic structure, Korean economy